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이주석	소속(학부/과)	기계공학과
파견 학기	2018학년도 2학기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하일브론 응용과학대학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4년 전에 패키지여행으로 유럽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첫 해외여행이라 더 그랬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좋았고, 이 분위기에서 여행뿐만 아니라 생활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좀 더 해보고 싶어서 더욱 더 관심이 갔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가기 전 준비는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들만 착실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한이 시험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일찍일찍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 상대학교에서 승인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도 많아서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본인이 시간을 비워둔다고 하루 이틀만에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항공권구입은 가는 것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는 것은 여행하다가 여행지에서 바로 한국으로 입국하실수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짧게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은 자주 있지만 길게 갈 시간은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 도착한 달에 바로 갈 수 있게 비행기를 미리 예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 기간에 크로아티아라, 아이슬란드같이 교통이 불편해 기간이 길게 필요한 국가에 갔다가 올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은 처음에는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시고 나중에 거의 다시 신청해야 하니 너무 크게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ethic은 개인적으로 좋은과목이고, micro와 HMI도 성적을 꽤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기숙사신청은 학교 측에 따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자리가 남는 것이 아니므로 계속해서 메일을 보내어 확인해야 기숙사 들어가실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한 캠퍼스마다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공대건물은 기숙사와 도보로 10분 내외 거리에 있으니 등교하시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영어수업이나 경영과목을 제외한 과목은 다른 캠퍼스에서 들어야 하는데 편도 40분 정도 소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기후는 겨울학기로 가시는 분들은 겨울이 되면 정말로 정말로 해를 보는 게 힘드실 겁니다. 제대로 맑은 날이 3주 동안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비타민D도 챙겨먹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봄 여름학기를 추천합니다. 한국에 비해 추위는 비슷하거나 덜 하지만 해가 없어 춥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기본적으로 수업들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몇몇 독일어 수업은 독일어 위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대지만 전공뿐만 아니라 타 전공 수업도 몇 가지 들었는데, 따라가는 데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영어수업과 전공으로는 Micro Controller, Human Machine Interface를 들었습니다. Micro Controller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습을 둘 다 공부하는 과목으로 팀 프로젝트 또한 있습니다. Human Machine Interface는 FBguide를 통하여 인터페이스를 직접 만들고 그 효용성에 대하여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도 팀프로젝트가

존재 합니다. 타 전공 과목으로 Ethic을 들었습니다. 경영에 윤리적인 판단이 개입될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를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공부한 것을 토대로 팀 프로젝트로 영어 발표가 있습니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에는 총 4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숙사 건물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케네디 기숙사의 경우 나머지 두 개의 기숙사와 도보로 15분 정도 떨어져있고 한 집에 3명이 사는 형태입니다. 공용으로 이용하는 거실과 주방은 다른 건물보다 넓지만 가장 낡은 건물입니다. 하나는 신형 건물입니다. 1인실과 2인실이 있는데 1인실은 혼자 방을 쓰되 외부에 별도로 있는 주방을 다른 1인실 거주자들과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화장실은 방 내부에 있습니다. 2인실은 공용으로 자그마한 주방과 화장실을 공용으로 쓰고 각자 방이 있는 미니투룸 같은 형태입니다. 거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오래된 기숙사에 2인실은 낡았지만 신형 기숙사 2인실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비용은 이용하는 기숙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머지 생활비의 경우 여행경비를 제외하면 식비나 기본적인 비용은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쌉니다. 하지만 외식비용이 한국보다 평균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요리를 할 경우 생활비가 한국보다 적게 들지만 술을 마시거나 외식을 자주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가을 겨울학기에는 인텐시브 코스라고 해서 학기 시작 전 독일어 수업을 먼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을 듣게 되면 안 듣는 학생들보다 주말에 가는 소풍을 한 번 더 갈 수 있구요. 외국인 친구들을 먼저 만나서 친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내성적인 분들은 생각보다 외국인 친구 사귀기 힘들텐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기 중 수업은 생각보다 친해지기 힘들어요.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학점 또한 인정되는 하나의 과목으로 해줍니다. 물론 이 시간에 여행 한번을 더 가겠다 하시는 분은 그것도 좋습니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교환학생 생각하시면 외국인친구와 교류(영어 회화)와 여행을 가장 많이 기대하실 텐데요. 여행면에서는 일단 FlixBus를 많이 이용하시게 될 겁니다. 인터넷에 바우처 많으니까 멀리갈 때 할인 잘 받으세요. 그리고 버스나 기차편 찾으실 때 Go Euro라는 어플이 있는데 이게 괜찮으니 추천합니다. 공항은 프랑크 푸르트와 스투트가르트 두 곳에 공항이 있으니 두 곳 비교해보고 비행편 사시면 됩니다. 독일 내, 특히 하일브론 내에서 다니실 때에는 DB Navigator라는 어플이 있으니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것은 길게 여행갈 수 있는 기간이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가게 되시면 그때 남은 기간에 여행을 가지 않은 것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을 겨울학기면 겨울에 몇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럽국가들은 흐린 날씨가 겨울에 계속되서, 짧은 방학기간에 여행다닐 때 해보시기가 힘들니까 도착하시자마자 덥겠지만 여행다니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럽 도착하기 전에 미리 항공권을 예약하시는 게 당연히 싸니까 알아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유로파 캠퍼스 옆 소살리토라는 식당있는데 월요일마다 음식이 반값입니다.

그리고 회화면에서는 일단 말하면 말하는 데 겁은 없어지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회화위주의 교육을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제 문법이나 발음을 교정해주지 않고 본인은 매번 쓰는 표현만 쓰기 때문에 오셔셔도 별도로 유튜브 등 매체를 이용하여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실 때 밥 좋아하시면 1인용 전기밥솥을 가져오시는 거 좋습니다. 나머지 한국음식 중에는 김이 무게당 가성비가 좋습니다. 라면은 여기서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음식하기 막막할 때 한두 번 드실 생각으로 들고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물론 각 나라마다 문화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만나는 건 다 똑같아요. 영어라도 존댓말은 없어도 상대를 배려하는 말은 있습니다. 우리한테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중국어랑 일본어로 인사하는 무례한 사람들도 있고 아시아인은 다 똑같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유럽 사람들, 서양인들 다 똑같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항상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 대하는데 고정관념도 없어야 하구요. 짧다면 짧고 길면 긴 6개월입니다. 자기스타일에 맞게 여행, 만남, 공부에 밸런스를 맞춰서 살아가시면 좋아요. 여행만 10개국 넘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한국인 말고 외국인들만 만나는 친구들도 있고, 여행하다가 자기는 미국 가고 싶다고 뉴욕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외국인 이성친구랑 사귀는 친구도 있구요. 각자의 특별한 교환학생 생활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